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리더십

LEADING IN THE UNCERTAIN MIDDLE

By Christopher C. Simpson

무언가의 시작은 우리의 관심과 기대를 사로잡고, 끝은 일의 마무리에서 오는 안도감이나 성취의 기쁨을 준다. 하지만 리더십은 어떨까? 리더십은 시작과 끝 사이인 중간에서 이루어진다 - 화려하지 않은 긴 여정 속에서, 앞길은 항상 막연해 보이고, 예기치 않게 위기가 찾아오고, 책임의 무게가 끊임없이 짓누르는 그곳에서 말이다.

Beginnings captivate us. Endings bring relief or celebration. But leadership? Leadership happens in the middle – the long, unglamorous stretch where the path forward is not always clear, where crises emerge uninvited, and where the weight of responsibility presses down with relentless force.

대부분의 리더가 이 중간 지대에서 살아간다. 팀을 이끌고, 결정을 내리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던 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일이 터진다. 경제 불황... 무너질 듯 불안해하는 직원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덕적 선택의 갈림길. 중간 지대는 예측할 수 없고, 혼란스럽고, 종종 지치게 한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리더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하고 스스로 묻게 된다.

This is where most leaders live. You are managing a team, making decisions, building something meaningful – and suddenly, you are caught in the middle of something far bigger than you expected. An economic downturn. An employee on the brink of collapse. A moral crossroads you never saw coming. The middle is unpredictable, messy, and often exhausting. And it's right here that leaders begin to ask: *What in the world is happening?!*

리더의 어려움은 이런 것이다. 중간은 두려움이 자라는 곳이다. 결과가 불확실해 보이면 우리는 지나치게 상황을 통제하려고 들거나, 아니면 잠시 그 상황에서 물러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지켜보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만약 상황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끝내 찾아오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상황에 대한 개인적 확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리더십으로 이끈다면?

Here is the challenge: The middle is where fear thrives. When outcomes are uncertain, the temptation is to seize control, retreat, or wait until clarity arrives. But what if clarity never comes? What if God is calling you to lead, not with certainty, but with trust?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라. 우리는 그 이야기의 극적인 시작을 잘 알고 있다. 요셉이 기적적으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낸 이야기이다. 우리는 또한 영광스러운 결말도 알고 있다. 그것은 모세의 열 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다. 그러나 그 중간은 어떤가?

Think about Israel's story in Exodus. We know the dramatic beginning: Joseph, miraculously raised to power in Egypt, preserving God's people. We know the triumphant ending: Moses, the plagues, the Red Sea splitting open to provide divine deliverance for the Israelites. But what about the middle?

430 년 동안 수많은 세대가 태어나고, 일하고, 노예로 죽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을 붙들고 말이다. 그들에게는 표적도 없었고, 일정표도 없었으며,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침묵 뒤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펼쳐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원의 무대를 마련하고 구원자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중간은 혼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혼돈이 아니었다.

For 430 years, generations were born, worked, and died in slavery – clinging to promises they never saw fulfilled: no signs, no timeline, no explanation of how their suffering fit into God's plan. Yet, history shows us what they could not see: God was working. Behind the silence, His plan was unfolding, preparing a deliverer, setting the stage for redemption. The middle felt like chaos. But it was not chaos. It was divine providence.

오늘날 수많은 리더가 그 중간 지대에 있다. 사람들은 성공을 축하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결정적으로 돌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느리고, 고된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보이지는 않지만 충성했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들, 그리고 노력이 열매를 맺을지 어떨지조차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갔던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That is where so many leaders stand today. We celebrate success stories and hear about defining breakthroughs. But no one talks about the slow, grueling middle – the years of unseen faithfulness, the sacrifices that feel unnoticed, the tension of not knowing if your efforts will ever pay off.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리더십은 단지 목표를 달성하고, 전략을 실행하며,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전하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은 당신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극복할 때까지 두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결승선에 가만히 서서 지켜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중간 과정에 함께 하신다. 불확실함 속에, 압박 속에, 당신이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신다.

Yet this is where God is at work. Your leadership is not just about hitting targets, executing strategies, or climbing the ladder. It is about being faithfully present where God has placed you. And the astonishing truth of Scripture is that He does not wait for you to figure it all out before He moves. He's not waiting at the finish line with crossed arms. He is in the middle. In the uncertainty. In the pressure. In the very place you are tempted to try to escape.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는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비틀거리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리더를 기뻐하신다. 비록 스스로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느껴지더라도 말이다.

And here is the best news: God is not asking for fearless, flawless faith. He delights in leaders who just keep showing up, even when they feel like they are barely holding on.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지금 불확실성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짐을 지고, 중간 지대에 있다면, 당신은 절대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라.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끈의 반대편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게 묶여 있다. 리더십은 스스로 미래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아니며,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

So, if you are in the middle right now – leading through uncertainty, shouldering burdens that feel beyond you – know this: You are not abandoned. That thread you are desperately clinging to? It is anchored to an unshakable God. Leadership is not about your ability to control the future. It is about trusting the One who already holds it. Hold on.

묵상과 토론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리더십으로 이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미래가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하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What does it mean to lead with trust rather than certainty? How have you seen God work in situations where you lacked clarity?

2. 리더십 여정의 '중간 지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나요?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스스로 느꼈던 때가 있었나요?

How do you recognize God's presence in the "middle" of your leadership journey? Can you recall a season where you felt you were waiting on God?

3.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답을 주기보다는 종종 보이지 않게 침묵 속에서 일하실까요? 이집트에서 430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당신의 관점에 어떤 도전을 주나요?

Why does God often work behind the scenes instead of giving us immediate answers? How does the story of Israel's 430 years of waiting in Egypt while enslaved challenge your perspective on God's timing?

4. 리더가 스스로 리더십을 잃었다고 느낄 때 주로 어떤 유혹들과 마주하게 되며, 어떻게 그런 위기에서도 충성스럽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빠져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어떻게 성경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나요?

What temptations do leaders face when they feel out of control, and how can we respond faithfully? How can Scripture help you resist the urge to act out of fear rather than faith?

5. 모든 것이 불확실한 중간 지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줄 수 있을까요? 팀원이나, 동료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상기시켜줄 수 있을까요?

How can we encourage and strengthen others who are leading in the uncertain middle? What can you do to remind your team, colleagues, or family that God is present in their uncertainty?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성경 구절 Biblical Passages for Further Exploration

잠언 3:5-6 :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Proverbs 3:5-6 –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s.”

리더십은 상황을 컨트롤하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말씀

A reminder that leadership is about trust, not personal control.

출애굽기 3:7-8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Exodus 3:7-8 – “Then the Lord said, ‘I have surely seen the affliction of my people who are in Egypt and have heard their cry... And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 out of the hand of the Egyptians.’”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일하고 계신다.

God sees, hears, and acts—even when it feels like He is silent.

시편 27:13-14 :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Psalm 27:13-14 – *"I believe that I shall look upon the goodness of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wait for the Lord!"*

기다림의 믿음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이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
Encouragement for those in the middle, learning to wait with faith.

고린도후서 4:16-18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2 Corinthians 4:16-18 – *"So we do not lose heart. Though our outer self is wasting away, our inner self is being renewed day by day. For this light momentary affliction is preparing for us an eternal weight of glory beyond all comparison."*

리더십이 겪는 고난과 인내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는 말씀
A perspective shift on suffering and perseverance in leadership.

이사야 41:10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Isaiah 41:10 – *"Fear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리더십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도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약속
A promise of God's presence and sustaining power in difficult leadership seasons.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is Week**

가장 최근에 자신이 '불확실한 상황에 부딪혀있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어쩌면 당신이 현재 그런 상황에 부딪혀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간을 따로 내어 신뢰하는 친구, 멘토, 또는 자문 그룹과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found yourself in the 'uncertain middle'? Perhaps you find yourself there now. This week it might be good to schedule time for you to discuss with others – a trusted friend, mentor, or your advisory group – what you are currently facing, seeking God's perspective on those challenges.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및 편저: 서진희 <기독교전문 서적 번역가, 제 21 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번역, 영어프렌드 미국원어민 온라인 어학원 대표>